

39년 된 덕진공원 연화정 전통한옥으로 새로 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보수보강 필요'

전주시, 시민 의견 따라 재건축 추진키로

전주시는 지은 지 39년이 경과하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덕진공원 연화정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전통한옥 건물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연화정의 상태파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존치여부와 정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민들과 주변지역 주민 등 참여한 1004명 중 70%가 넘는 709명이 전통한옥식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희망했다.

반면, 존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186명, 철거 후 현대식 건물 신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연화정을 우리나라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사업비 절감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연화교 재가설공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내에 연화정 신축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특강 끝난 장관과 함께 '찰칵'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명품 교양과목 '유레카 초창강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이 13일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전주역 앞 버스승강장, '예술이 숨쉬는 곳으로'

시, 이달 말까지 조성... 지역 예술가 참여 특색 살린 조형물 설치

전주시는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여행객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주역 앞 동부대로 버스승강장을 이달 말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술조형물과 미세먼지 회피 및 헤파기능을 갖춘 승강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지역예술가의 참여로 제작한 조형물을 설치,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특색 있고 독창성을 지닌 공공시설물이자 품격 있는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 있는 승강장을 제공키로 했다.

이곳에 설치될 조형물은 전주에서 좋

은 추억을 가지고 떠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다.

아울러, 이곳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와 미니도서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에어커튼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복합 헤파형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설치하고 버스도착으로 알리는 장애인 알림표시벨과 알림표시등을 설치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역 앞 첫바퀴길과 전주시청 등 주요환승지와 이용객이 많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총 29개소의 예술 있는 승강장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추가로 13개 예술있는 승강장을 조성하는 등 예술성과 기능성을 갖춘 승강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과장은 "지금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었으나 기능성 및 예술성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찾아오는 헤파형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여름철 농작물 재해 대응체계 구축 '총력'

전주농기센터, 농업현장 밀착지도 실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이달부터 전주시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시 가뭄과 폭염,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농업현장 밀착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평균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고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과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지 과수원과 밭작물 가뭄해결을 위한 관수자재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시설인 환풍팬과 포그분무시스템 등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폭염 및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 농작물 관리기술과 농작업 안전 요령, 온열질환 예방 요령을 알리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지도 등 사후 관리대책도 지도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갈수록 기상이변이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주시지역 농가에서 모든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작업에 임하고,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U-20 축구대표팀 우승 기원

전주서 16일 오전 1시 결승전 거리응원 진행

최근 U-20 FIFA 월드컵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한 태극전사들의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전이 펼쳐진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시 국립무형유산원 가운데뜰에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과 우크라이나와의 2019 FIFA U-20월드컵 결승전의 선전을 함께 응원하는 거리응원전이 진행된다.

폴란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숫돌이' 이강인(18·발렌시아)을 중심으로 4강전 결승골의 주인공 최준(20·연세대), 193cm의 장신 공격수 오세훈(20·아산) 등 팀원 모두가 하나로 뽀얗 뽀얗 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FIFA 주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첫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이번 야외 거리응원에는 미래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U-20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전주시민과 여행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거리응원을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경기 시작 전인 15일 오후 11시부터 무형문화재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후에는 대형LED전광판을 통해 2019 FIFA U-20 결승전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함께 응원전을 펼치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교통, 치안, 구급 등 분야별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80대 노인 승합차량 방치 숨지게 한 요양병원장 영장

운전기사·요양보호사 등 입건

80대 노인을 승합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 모 요양병원 원장 A모(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 B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전 11시 20분 경 지난 모 요양원에서 자신들의 요양병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C모(89)씨를 옮기던 과정에서 한 하루동안 차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C씨가 사망원인이 '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수사에 나선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발견 당시 호흡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으며, 구급차량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80대 노인을 승합차량에만 하루동안 방치했음에도 사망에 영향이 없었다는 태도다.

달초 이 사건 다음날 병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많은 환자를 이송하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지만 "A씨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여름 불청객 레지오넬라증 '관리 철저 최선'

전주시보건소,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대상 사전예방 검사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레지오넬라증 등 여름철 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와 수계시설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레지오넬라증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내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된다.

전염성을 없으나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 레지오넬라증 중 폐렴형의 경우에는 주로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발생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건물,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대형목욕시설, 분수대 등으로, 보건소는 냉각탑수와 병실 내 화장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탕 내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분수대 등의 검체를 채취키로 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장업시설의 경우 목욕의 수질 관리 및 온도 조절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냉각탑에 대한 청소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레지오넬라증의 경우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사망률을 보이므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북대병원 치과위생사회 병원발전 후원금 500만원 기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모임인 치과위생사회(회장 함순초 영상치의학과)에서 병원발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달식은 본관 한벽부흥에서 조남천 병원장과 이승욱 기획조정실장, 함순초 치위생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치과위생사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들이 모임으로 상호교류와 친목도모는 물론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후원금은 병원 발전을 통한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함순초 회장은 "병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병원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면서,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병원발전을 위해 큰 마음을 보내주시는 치과위생사회원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정성을 깊이 새겨 병원발전을 통한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중히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교대 - 대자인병원 상호발전 업무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13일 전주 대자인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을 비롯한 양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가족포함)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협력기관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병관 원장은 "전북도 최고의 교육기관인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양기관이 앞으로 서로 협력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영 총장은 "먼저 전주교대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동발전 모색을 제안한 대자인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협약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에 힘쓰는 대자인병원과 교육서비스에 힘쓰는 전주교육대학교 간 상호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에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희 기자

진열대 전시 화장품

훤친 일당 경찰에 '덜미'

진열대에 전시된 화장품을 훤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38분 경 전주시 완산구 모 매장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 등을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